

외고·자사고·국제고 시행령 2025년 '일괄 삭제'

한국정부가 시행령에 규정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법적 지위를 2025년 3월 '일몰제' 방식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2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오는 27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대책을 발표하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시행령은 국회의결 없이 정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해당 학교의 입학·선발 시기 등이 규정된 관련 시행령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또 일부 일반고의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 시행령 부칙도 삭제한다.

시행령 삭제는 일몰제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고 전환 시점까지 5년 이상 남은 만큼, 부칙에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자연스럽게 시행령이 개정되게끔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 입법예고를 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도 이들 학교의 실제 폐지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설 차기 정권의 교육철학에 따라 시행령이 다시 뒤집힐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전북 상산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을 당시 상산고를 지역구에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 151명이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듯, 이번에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계와 학계 안팎에선 정부가 시행령 삭제만으로 이들 학교를 모두 없애는 게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3은 '교육감은 법 제61조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및 고시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을 받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위 법인) 61조를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건 위험"이라며 정부의 시행령 삭제 이전에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에 "여러 법률적 검토를 거쳤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는) 시행령 조항 삭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소방서비스 질 향상될 것"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입법화는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약 5년 만이다.

1992년 각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확립된 현재의 광역자치 소방체제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나아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직화 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덕에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뤄졌다"며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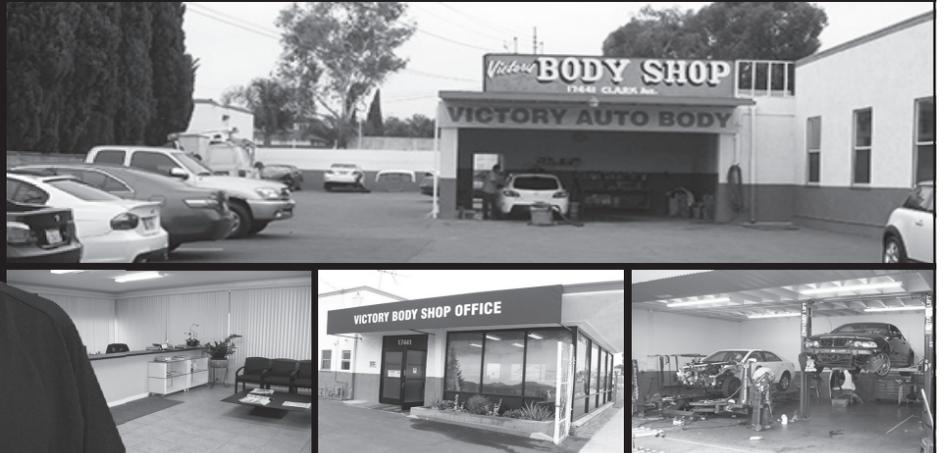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